

글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 붓다, 중생이라고 했으나  
이름에 얽매어 분별을 낼 것은 아니다.  
-선가귀감-

# 현대불교

부처하는 불교를 읽는다 02) 745-8503  
이) 1) 286-2680 서울 상복구 상복동  
실상선원 04) 1) 734-2680  
무주지엄의인선원 불교인력사 대안선사선안선안수원

내선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9월 5일 수요일 (주) 제 333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송광사의 문화 불사

8월 25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송광사 소장 원대 타베트 고문서 규명'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다른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였지만, "조계종 재건교구 본사인 송광사가 불교문화를 지키는 일에 열심"이라는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말처럼,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남다른 배경에서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송광사 소장 고문서(전남 유형문화재 30호)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 역시 불교의 유 무형 자산의 의미를 조명해 오고 있는 송광사의 여정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송광사(주지 현봉)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국보로 지정된 목조삼존불을 전통양식대로 복원하는가 하면 불교성보보수교습원을 개원, 사찰 문화재 보수 및 보존 분야에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문화불사'에 주력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회두였던 원대 고문서는 '진기한 글씨'로 유명한다.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해독되지 않은 채 송광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왔다. 그러나 송광사는 보존에 만족하지 않고, 이 문서가 체계적으로 귀중한 공물제국에 관한 1차 자료이자 고려불교계와 몽골불교계간의 관계 연구에 귀중한 자료란 점에 의식치 않고 문서의 진가를 밝혀내는 일에 서원을 세운 것이다.

'송광사의 요즘 화두는 불교 문화'라고 강조한 성보박물관장 고경삼님은 "3개월마다 열리는



"이 역시 사중 스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건축 불사와 달리 문화불사는 진척이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불사이다. 전통문화가 급격하게 무너져가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전통을 율곧게 간직해 오고 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곳이 사찰이다. 교구본사로서 문화불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이는 송광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 조계종 - 선학원 관계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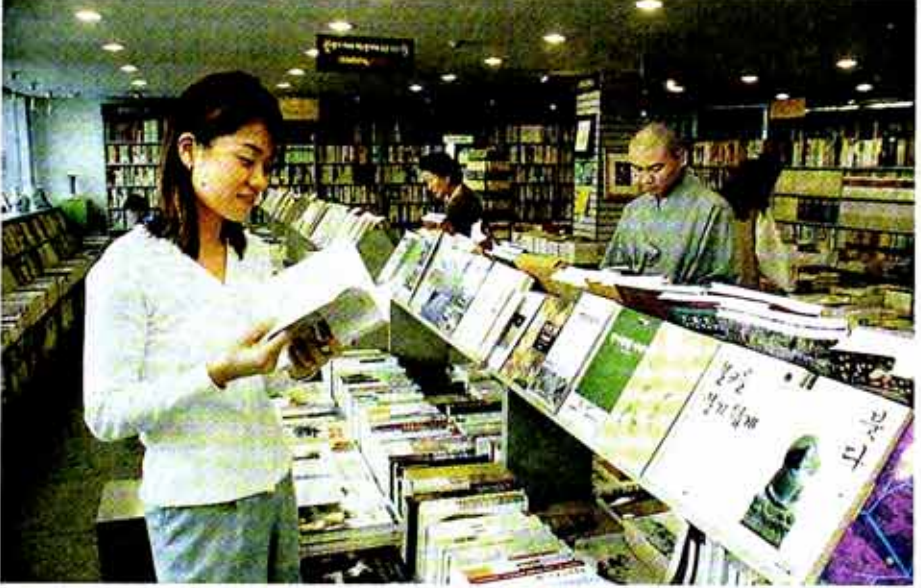
### 종지종통 봉대·승적 수계 제한 해제 등 6개항 합의

#### 조계종 종회·선학원 이사회 추진 남아

23년 만에 조계종과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법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직대 원담)와 (재)선학원 실무위원회(위원장 직대 동진)는 8월 30일 회의를 열고, 6개항의 관계 정상화 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78년 선학원이 입원본 원장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

정하며 과잉된 조계종과 선학원의 해묵은 갈등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양측은 이날 관계 정상화 안을 통해 △선학원 정관 목적 조항에 대한 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를 삽입 △선학원 정관 임원선출 조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은 선학원에 대한 승적, 교육, 수계에 대한 권리 제한을 해제, 법인의 인사, 운영, 관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를 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선학원은 조계종에 교육 부담금을 납부하고 조계종 소속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을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책으로 가을맛이를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다가왔다.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책방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절실한 가을에 불사를 가까이 해 삶을 보다 중요하게 해 보자. 책방어사이문=고영애 기자

### 조계종 승려 대사면 청원

#### 19개 본사주지 등 중진스님 1200명 서명

원두·도각 스님 참회문 복권 선서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94년, 98년 당시 징계 받았던 원두스님(전 원로회의 사무처장)과 도각 스님(전 종회 사무

조계종 승려 사면복권운동본부(공동대표 직관스님 등 6인)는 8월 28일 징계 승려들의 대사면을 바라는 청원서 및 탄원서를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직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종단내 비폭력 문화 정착은 보다 철저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상호간 연, 상호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94, 98년에 징계된 승려들의 회고 및 반성에 대해 종단 차원의 대사면

처장은 이날 '사부대중에게 보내는 회고와 반성'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8월 29일 총무원장 정대 스님에게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4일 종회에 19개 교구본사 주지 등 중진스님 1200명의 서명부를 첨부한 청원서를 각각 전달했다.

#### 세연재 -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7면

그 누구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역사 또한 큰 방산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조각과도 같이 극히 작은 퍼즐조각의 하나일 뿐이다. 이번 호부터 새롭게 연재되는 '감춰진 불교이야기'에서는 공식불교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고

### 화엄사 등 8개 사찰 방법 방화시스템 설치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정대)은 각 사찰에 설치할 방법·방화시스템을 점검하고, 총무원 인증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8월 18일 화엄사, 실상사 등 8개 사찰에 도난방지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조계종은 8월 29-31일 7개 업체가 설치한 사찰에 대한 모의 문화재 도난 훈련 등을 실시했다. 호법부장 종지 스님은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지난 13-18일 8개 사찰에 시범 설치한 업체의 방화장치를 점검하고, 특히 도난사건 발생시 각 사찰과 경찰서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 허점 투성"

국립중앙박물관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는 유물을 대량 구입하고도, 문화재 지정절차를 밟지 않는 등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월 29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 감사결과, 박물관이 지난 9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천859점의 유물을 구입하면서 155억595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단 1점도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형진 기자

### 지역불교 문화기행

9월 : 부석사·봉정사·용문사

### 신라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최암종의 근원도량인 부석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목조건축물의 하나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아한 예술미감과 높을 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 번씩 보고갈 정도로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여왕이 방문해 더욱 유명해진 봉정사 극락전은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안식을 잘 이어받은 주심포 및배지붕 건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들어오는 길에는 회천사 불경보관대인 용장대가 있는 예쁜 용문사도 함께합니다.



- 출발: 9월 22일(토) 밤 11시 조계사 앞무박2차
- 회차: 5일 5천원(조식 중식대금)
- 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현대불교신문사

### 장군 죽비

- ◇조계종 문화재 보유 사찰 방법 시스템 강화. 불심은 굳건히 지키고 도둑은 발도 볼일 수 없게 한다. (3면)
- ◇한국언론기자연합회 2천여 택시에 장기기증 홍보지·모금함 설치. 달리는 불심 생명나눔 메신저로. (5면)
- ◇하이텔불교동호회 매월 대부도 자선사 '동지마을'에서 봉사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거룩한 만남. (8면)
- ◇돈벌이에 열안이 된 지자체 지리산·한라산·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키로 양복업고 산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 노력중이다. (22면)

##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거룩한 삼보전에 일심으로 예경하옵니다. 한국불교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글대장경 완간 불사가 마침내 37년의 긴 산고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다음과 같이 회향법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거룩한 불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원로 대덕 스님과 후원회원님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 불자님을 모시고 여법하게 회향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동국대학교 총장 손석규  
집행위원장 / 동국대경원장 월운 함창

법회장소: 장충체육관 특설법회장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법회일시: 불기 2545(2001)년 9월 5일(음 7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문의처: 동국대경원(2260-3893), 삼보불교음악협회(723-0440/2)

- 법회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을 이용하십시오.
- 회향법회 참석은 무료이며, 참석하신 불자님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회향법회가 끝난 후 장사익, 김성녀, 사물놀이 등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봉행위원회 (9월)

중 명/문/고	베암(종정), 관음, 서용, 서암, 석주, 월하 고승, 녹헌, 고산, 덕평, 도문, 도원, 도천, 동춘, 범종, 법진, 법정, 보성, 성수, 송담, 송산, 원담, 원명, 월주, 이우, 정일, 정현, 종산, 지관, 지중, 진해, 천운, 정하, 철학, 혜정, 활안, 각해, 덕암, 도용, 좌산
지 문 위 원/	법정, 고담, 근일, 다정, 도영, 도원, 도수, 마근, 무관, 우전장, 범종, 법산, 법성, 법의, 법진, 법조, 법타, 법현, 법파, 보선, 석정, 설정, 성오, 성우, 성타, 성파, 신하, 압도, 오현, 월서, 월탄, 인환, 정락, 정권, 정우, 종걸, 종법, 종하, 종원, 지명, 지하, 진재, 진하, 초우, 태연, 통광, 항직, 현각, 현성, 현태, 현호, 혜공, 혜성, 혜정, 홍고, 문덕, 경우, 혜초, 홍과, 광우, 대방, 명성, 묘영, 진관, 권노각, 김광삼, 백창기, 서문각, 선진규, 유주형, 이상현, 전동원, 한희갑, 황명수
봉행위원장/봉행위원/	정대, 손석규, 각성, 각원, 경문, 계성, 계호, 광복, 광조, 대오, 대원, 덕조, 도각, 도공, 도환, 도문, 동욱, 동인, 동초, 명조, 명진, 몽산, 무이, 무학, 백운, 범종, 범보, 법안, 법해, 법담, 범봉, 보문, 본각, 삼운, 석호, 선각, 선광, 실승, 성근, 성광, 성덕, 성달, 성오, 성운, 세영, 수관, 수현, 양산, 여연, 영담, 영배, 영조, 우담, 운달, 원담, 원명, 원우, 원타, 원택, 원병, 원해, 원승, 유경, 의정, 인욱, 일법, 일현, 지성, 지용, 정국, 정운, 정적, 정우, 정각, 정녕, 정우, 정인, 종법, 종현, 종삼, 종하, 지경, 지옥, 지운, 지현, 지형, 지용, 지홍, 진각, 진관, 진원, 천오, 철화, 탄우, 태공, 태봉, 학담, 학담, 해경, 해주, 현각, 현고, 현국, 현승, 혜공, 혜성, 혜정, 혜중, 홍선, 화범, 효경, 각 강원 강주, 역경원 역경위원, 동국대학교 교무위원, 각 종합학교장
집행위원장/집행위원/집행위원/운영위원장/운영위원/	월운, 권택, 보광, 김순경, 황명수, 조계종 총무원 부·실장, 동국대학교 정책위원, 각 종단 부장, 일연, 기 책 부, 부장 현고, 위원 법명, 성일, 지현, 혜림, 화해, 흥 보 부, 부장 혜자, 위원 반산, 선우, 승국, 실진, 초격, 섭 의 부, 부장 계성, 위원 법해, 신현, 일관, 월안, 호산, 조 직 부, 부장 상운, 위원 목암, 보인, 예선, 최암, 지원봉사부, 부장 상근, 위원 도원, 성의, 준원, 지현, 화원, 의 식 부, 부장 인욱, 위원 광우, 성마, 환종, 위원 광우, 동산, 범공, 정인, 재 정 부, 부장 학봉, 위원 수경, 연승, 환봉